



## 사랑하는 당신에게

글\_ 김명수



1991년 겨울,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자그마한 키에 단단한 체구를 지닌 그는, “혹시 명수 씨 아니세요?”하고 내게 물어왔고 저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. 친구의 주선으로 만난 우리는 인상착의와 시간약속만 정한 채 그렇게 어색하게 만났습니다. 부슬부슬 눈까지 날리던 그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

금새 가까워진 우리는 다음해 가을 결혼식을 올렸지요.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. 이제 큰 아이는 4학년 작은 아이는 2학년이 되었고, 저는 결혼 10년차 주부가 되었습니다.

10년이 지나는 동안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 재작년

의 일입니다.

어느 날부터인가 목에 뽀루지 같은 것이 나기 시작하더니 차츰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.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동네병원을 찾아갔지요.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끊어주며 좀 더 큰 병원을 소개했습니다.

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남편과 함께 우리 동네에선 제법 큰 병원인 원자력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. 의사는 임파선 종양이라며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. 종양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….

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.

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소주잔만 기울였습니다. 연신 미안하다며 굉장히 괴로워하더군요. 내가 당신을 만나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고, 그런 병이 생긴 절반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며 울먹였습니다.

당시 남편은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IMF한파로 빚만 잔뜩 진 채 사업을 포기하고 있던 때였지요. 우리는 압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빚 독촉장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.

저는 동네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핸들커버에 인형을 다는 일이며, 옷걸이 만들기, 인형 눈 붙이기 같은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제 병을 알게 된 남편은 방안에 늘어져있는 부업거리를 쳐다보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요. 하지만 한 푼이 아쉽던 저는 부업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.

## '사랑'은 세상에서 가장 맛난 성찬

다급해진 남편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나 봅니다. 구멍가게 사장도 사장이라고,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상황이 좋아지면서 직원수도 늘이다 보니 늘 윗사람으로만 있었던 게지요. 취업을 해도 잘 견디지 못하더군요.

그렇지만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게다가 제가 병까지 걸리자 남편은 더 이상 사장도 뭐도 아니었습니다. 자존심 따위는 집에 두고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.

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6개월 정도를 더 요양을 하며 병원을 오

고 가고 약을 먹고 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. 그때 남편이 힘든 가운데서도 저에게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은 제가 지금껏 보아온 남편의 어떤 모습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.

생일에 꽃을 사오는 일이나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남편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는데 제가 아프던 그때 남편은 손수 밥을 지어 아침상을 차려놓고 편지 한 장 써놓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.

“밥맛 없다고 굶지 말고 꼭 챙겨먹어. 오늘이 당신 생일이지? 뭐 해줄 건 없고 미역국 한 그릇 끓여봤다. 맛있게 먹고 약 꼭 챙겨 먹어. 내 맘 알지?”

그때 제가 먹었던 미역국. 세상에서 가장 맛난 성찬이었습니다.



## 벤처 사랑 사진전 (Venture Passion상)



가치 있는 비전 공유 사진 사진 허정선 씨메이커

워크숍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.  
나만의 성공이 아닌  
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꿈이야말로  
아주 멋진 꿈이 될 것입니다.

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 
만인이 꿈을 꾸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.  
꿈을 함께 공유하고, 열린 사고를 가진다면  
만인이 함께 성공하는 꿈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.

- 김종래의 <CEO 징기스칸> 중에서 -

# Venture Passion